

韓國 笠制의 變遷에 關한 研究

姜 淳 弟

| <目 次> | |
|---------------------------------------------------------------------|--------------------------------------------------------------|
| I. 序 論 II. 朝鮮王朝以前의 笠 A. 上古時代의 笠 B. 高麗時代의 笠 III. 朝鮮王朝의 笠 | A. 笠의 需用過程 B. 笠의 種類 C. 笠모양의 變化(黑笠의 制樣에 對하여) IV. 結 論 |

I 序 論

本 論文은 우리나라의 冠帽中에서 朝鮮王朝에 이르러 가장 一般化한 冠帽로서 남아있었던 國俗의 笠子에 對하여 이의 起源과 變遷을 史的인 面에서 살펴 본 것이다.

笠에 對하여 中國文獻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說文解字에는 笠을

笠無柄也

라 하였고 篇海에는

笠笠以竹爲之 無柄曰笠 有柄曰箬

이라 하였으며 急就篇註에는

笠笠皆所以禦雨 大而有把手 執而行 謂之箬

小而無把 首戴以行 謂之笠

또 段玉裁說文解字註에는

汪氏龍曰 笠出以御暑亦可御雨 故良耜傳笠所以御暑雨

無羊傳蓑所以御雨 笠所以備暑 都人士傳 臺所以御雨

笠所以御暑 三傳相合

이라 하였으니 笠이 繖類(우산)에 屬하는 것임에 반하여 笠은 우산처럼 손에 들게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것으로 發生 初期부터 暑氣와 風雨를 가리기 위한 用具로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笠은 社會的 意義를 갖는 冠帽라고 하기에는 不適當 感이 있으며 그 形態도 帽

와 簷의 區別이 없이 簷만이 발달된 단조한 것으로 笠에 柄을 除해 버린 方笠式의 形態임을 알 수 있다. 적어도 中國에서의 發生 初期에는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 晉書 天文志에

天形如笠 中央高而四邊下

唐의 儲光羲의 牧童詞에

圓笠覆我首

皮日休의 詩에는

荷笠低遮面

이라 하였으니 이것 또한 方笠과 같은 形態의 笠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唐의 永徽年間

에는 遠行할 때 風

塵을 가리기 爲한

冠帽로 考案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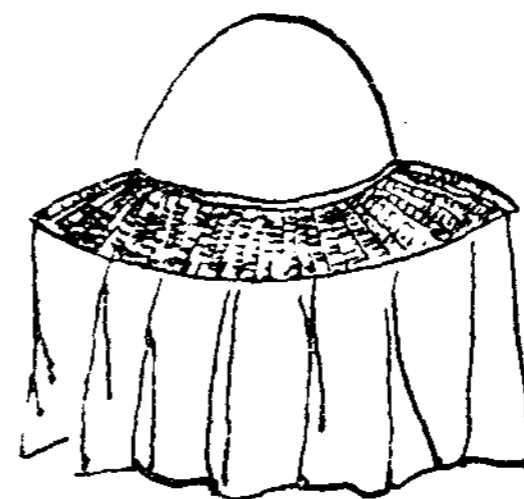
이라고 하는 笠子

形(帽와 簷의 구별이

있는 平涼子型을 말

함)의 帷帽(도1)가

있고, 唐三彩 着笠



<도 1> 帷 帽(三才圖繪參照) 人物像(도2)과 陶

俑 騎馬女子像(사진1)에도 笠子形의 冠帽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笠이 後世에 冠帽로서 發達됨에 따라 나타난 特殊形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笠은 最初에는 어떠한 狀態에 있었으며 어떠한 變遷을 하면서 一般化하기에 이르렀는가. 이에 對하여는 朝鮮王

朝以前과 以後로 區分하여 各 時代에 있어서의 着用狀態 및 種類등을 文獻과 遺品 또는 風俗畫

II 朝鮮王朝以前の 笠



<도 2> 唐三彩 着笠人物像

우리나라 笠形 冠帽의 存在는 新羅 高句麗에 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있어 始源을 三國時代로 소급해 봄은 可能하나 重要한 點은 그 形態가 前述했던 方笠式만이 아닌 帽와 簷의 區別이 뚜렷한 平凉子型의 笠도 이미 存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系列의 笠은 新羅統一以後 급격한 中國文化의 影響下에서도 庶民頭飾에서 잘 지켜졌던 모양으로 高麗代에 들어서는 徐兢의 「高麗圖經」中 下庶人 頭飾에서 보이는 或方 或圓의 竹冠에서 그 面貌를 살펴볼 수 있다. 점차 末期에 이르러는 笠의 正수리에 着用者의 品數에 맞는 白玉, 靑玉, 水精玉등을 달게 하는등 品階를 가려 笠制를 定하고 文武百官에게도 着笠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朝鮮王朝 五百年의 重要冠帽인 黑笠에로 移行되는 重要한 時期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三國時代에 이미 두 系列로 存在하고 있었던 笠은 이때에도 잘 지켜지고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A. 上古時代의 笠

1. 遺品을 통하여 본 笠形 冠帽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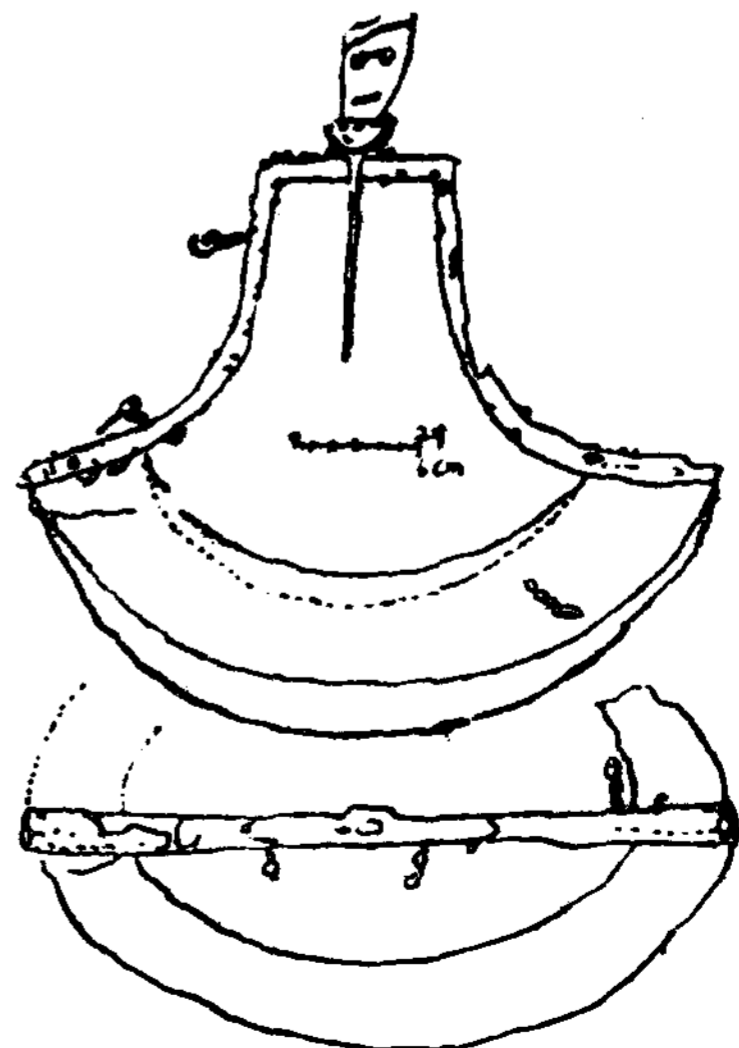
가. 金冠塚 出土 笠形 冠帽

곳갈形 金具만이 出土되었고 周圍의 金銅製覆輪과 下緣의 金銅張板과 頂上의 金銅飾(箭形)의 輪廓이 잔존하여있다(도 3).



<사진 1> 陶俑 騎馬女子像(唐代之의 服飾에서)

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笠의 歷史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여 보고자한다.



<도 3> 金冠塚出土 곳갈笠金具

이 笠形冠帽에 대하여 濱田氏は

「...어쨌든 이같은 冠物은 다른 塚에서는 아직 發見되지 않은 것으로서 中古 狩獵때에 사용되었던 日本의 笠에 恰似한 點으로 본다면 或은 狩獵行遊時에 使用되었던 것이나 아니었을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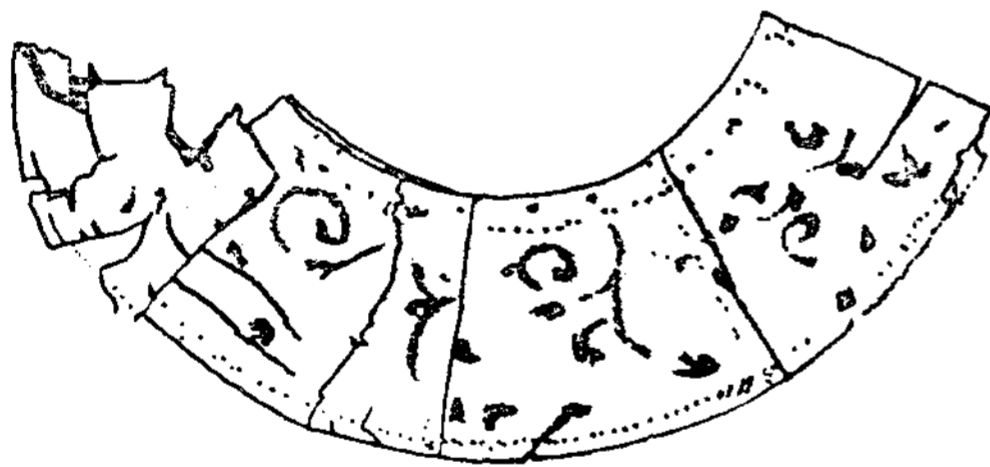
라고 말하고 있으며 李如星氏는 또

「이 笠形冠帽는 女僧의 송낙型 冠帽로서 几字形冠骨과 周緣金板에 嬰珞飾이 있고 또 主部에 綾布를 使用한 것으로 보아 매우 호사한 것이며, 이것을 野外狩獵時에 着用하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며 차라리 貴婦人의 나드래用 冠帽가 아닌가 한다.」²⁾

하였고 金東旭氏는

「南方의 金鈴塚(筆者의 생각으로는 金冠塚의 誤植인 것 같다) 出土인 高峯形의 帽形은 李朝代의 戰帽나 女僧의 송낙, 더 크게 되어서는 方笠等과 같이 南方계통의 冠帽에 화려한 장식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冠帽를 中心으로 南方에 高峯形의 兩日 노동모가 있었다.」³⁾

하였으니 이러한 各各의 異論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우나 이 笠形冠帽의 形態를 復元하여 본즉 帽子집과 양래部의 區別이 없는 形態임이 주목되니 이는 禦暑를 爲한 高峯 冠帽로서 方笠型의 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 4> 金鈴塚出土 笠形 白樺皮帽

나. 金鈴塚出土 笠形 白樺皮帽(도 4)

이는 笠의 稗簷과 같은 데로 보이는데 그 形態로 보아 원래는 여기에 笠의 帽屋이 달려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바, 이것은 前述한 것과는 다른 平凉子型의 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高句麗 龍岡郡花上里 龕神塚壁畫

이 壁畫에 묘사된 着笠人物을 보면 帽屋과 稗簷이 뚜렷한 구별을 가진 제법 발달된 笠을 쓰고있어 注目된다(도 5). 즉 帽가 높고 簷도 넓



<도 5> 龕神塚 騎馬人物의 笠

지만 帽頂이 평평치 않고 둥근 것으로 보아 平凉子와 비슷한 形으로서 現今 笠子의 原型으로 보이는 點은 특이하다. 또한 이 그림은 狩獵光景을 묘사한 것이므로 물론 狩獵行動에는 簡素한 服裝이 必要하고 또 夏季에는 禦暑 禦雨의 冠帽도 要求되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니 이러한 用途에서 擇用되었으리라 보는 이 笠은 當時에도 平民的 冠帽이었으리라 봄이 타당하다. 또한 韓國으로 부터 건너간 것으로 認定되는 日本 正倉院物品 中 麻布山水圖에 있는 人物의 冠帽가 이같은 笠이었다고 하니 이 時代 笠의 着用을 보다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⁴⁾

2. 文獻에 나타난 形態

가. 三國遺事 元聖大王(785-798)의 記事

元聖大王의 夢說話는 笠이 文獻에 나타난 가장 最初의 記錄인데

伊殄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居二宰 夢脫幘頭 著素笠……覺而使人占之曰 脫幘頭者 失職之兆……阿殄興拜曰 此乃吉祥之夢……曰脫幘頭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라 하였으니 當時 素笠의 存在는 확실한 듯하며 「著素笠者 冕旒之兆」에서 素笠을 特定人이 썼던 冠帽로 본다면 그 制樣에 있어서도 冕旒와의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즉 素笠에도 冕旒의 冕板과 같은 笠簷을 상상치 않을 수 없으며 또한 冕旒의 旒라는 것은 冕板의 앞 뒤에 垂飾된 綵繩珠玉을 말함이니 笠에는 이에 견줄만한 것이 없는 즉, 當時의 笠簷은 顯著히 內曲하여 眼界를 덮은 것이 旒와 같았음을 말하였음이 아

1) 濱田青陵, “第六金銅冠其他의 帽幘—笠形—”, 慶州의 金冠塚, 朝鮮總督府, (1932), pp. 32~33.

2)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p. 146 ~147.

3) 金東旭, “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Ⅳ, (서울: 1970), p. 77.

4) 李如星, (1947), p. 144.

널가.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素笠은 帽와 簷의 區別이 없는 方笠型의 笠으로 추측해 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笠에 對한 先儒의 說

李晬光은 그의 著「芝峰類說」에서

羅濟笠 不知所始 但以名觀之 疑出於新羅百濟時 高麗史 辛禑元年 始令各司胥吏着白方笠

이라 하여 三國時代의 笠의 存在를 羅濟笠이란 名稱의 解釋으로 想像하고 이를 高麗 辛禑元年 各司 胥吏에게 着用하게 하였다는 白方笠과 관련을 짓고 있으며 鄭東愈도 그의 著「晝永編」(下)에서 方笠을 羅濟以來의 制冠으로 看做하고 있다. 또한 李圭景도 그의 著「五洲衍文長箋 散稿」에서

新羅太宗以前 循土風戴羅濟笠 太宗以後用唐制 然羅濟笠則公私通用之常着 至麗朝猶然……

入國朝惟郡邑吏着羅濟笠……

「新羅太宗 以前부터 羅濟笠을 착용하였으며 太宗以後 唐制를 습용하였는데도 羅濟笠은 公私 通行時 常着하여 高麗朝에도 여전히 使用됨에 이르렀다. 朝鮮王朝 初에도 郡邑의 胥吏들이 羅濟笠을 着用하였다」고 하였으니 高麗朝나 朝鮮 初에 胥吏들이 着用했던 笠은 方笠인 바, 新羅 太宗 以前부터 使用했다고 하는 羅濟笠이라는 것도 方笠 乃至 方笠型의 笠을 指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 高麗時代의 笠

高麗初의 笠의 形態는 徐兢의 「高麗圖經」 民庶 條에서 그 面貌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舟人……作竹冠以冠以定之 或方或圓……

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竹冠은 바로 笠을 指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方·圓의 두 制樣으로 나타나 있으니 方冠과 圓冠의 두 모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方笠이나 샷갓 種類인 것 같다. 이에 對하여 金東旭氏는 「方冠은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方笠(방갓)으로 보이며 圓冠은 平涼子型이 아닌 방갓과 같으며 圓型이란 뜻이 아닐가」⁵⁾

라고 추측한 바 있다. 또한 이것은 舟人의 冠帽

로 되어 있으나 農民도 作業時는 썼을 것이므로 下庶人 頭飾으로 널리 使用되었으리라 봄이 옳을 것이다.

元宗(1259~1274)元年 2月에는 僧人 笠子着用을 法으로써 禁하였고⁶⁾ 忠烈王 33年(1274~1308)에는

禁僧同雪笠 大禪師大德已上 八面八頂笠圓頂笠 違者 罪之 (高麗史卷八十五)

이라 하여 大禪師 大德이상은 八面八頂笠·圓頂笠을 着用하도록 하고있어 僧人들의 笠子着用을 엿볼 수 있는데, 僧人들의 服制가 비교적 옛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朝鮮王朝實錄」⁷⁾ 11卷 成宗 20年 3月條에 今時俗所尚 笠樣有似僧笠 云云……

이라 하였고 燕山君 3年 正月(實錄11卷)에는 成宗惡笠體圓頂而簷廣 如僧笠模形……

이라 하여 朝鮮初의 僧笠은 笠體가 圓頂하고 簷이 넓은 形態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니 이에서 앞서의 八面八頂笠이나 圓頂笠의 形態도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末期에 이르러는 笠의 着用이 보다 활발해 졌음을 보이고 있다. 즉 恭愍王 6年

恭愍王六年閏九月 司天少監于必興上書 玉龍記傳

我國始于白頭 終于智異 其勢水根木幹之也 以黑爲父母 以青爲身 若風俗順土則昌 逆土則災 風俗者君臣 百姓衣服冠蓋是也 今後文武百官黑衣青笠 僧服黑巾 大冠 女服黑羅 以順土風 從之 (高麗史 卷七十二)

라 하여 水根木幹의 風土에 따라 君臣百姓의 衣服冠을 定하고 있는데, 「文武百官黑衣青笠」이라 하였으니 百官에게 笠을 着用하게 했다는 사실은 注目할 만 하다. 또한 恭愍王 16年 7月

教曰……今後諸君宰樞代言判書上大護軍判通禮門 三司左右尹知通禮門 黑笠白玉頂子

三親從諸摠郎 三司副使入備身前陪後殿護軍 黑笠青玉頂子 諸正佐郎 黑笠水精頂子

省臺成均典校知製教員及外方各官員 黑笠隨品頂子 縣令監務黑笠無臺 水精頂子 (高麗史 卷七十二)

라 하였으니 여기 黑笠이 어떠한 制樣이였는가는 確信할 수 없으나 「縣令監務黑笠無臺」라 한 즉, 이는 坎頭型이니, 따라서 그외의 黑笠은 笠臺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前記한 百官의

5) 金東旭, “高麗圖經의 服飾史的 研究”, 延世論叢, 第七輯(1970), p. 15.

6) 高麗史, 卷八十五.

7) 以下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刊)은 實錄으로 表記

靑笠도 臺가 있는 竹笠으로 추측된다. 또한 品階에 따라 頂子의 裝飾을 달리하였음을 보이고 있는데 頂子란 笠子의 정수리에 玉이나 기타로 장식한 것이니 요즈음도 병거지 위에 장식을 하는 것과 같은 類型이다.⁸⁾ 이 制度에 使用된 帽頂珠를 金東旭氏는 그의 著「李朝前期服飾研究」에서 明制를 倣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元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元代의 鈇笠은 簷이 작은 坎頭型의 笠子로 오늘날 군대의 鐵帽와 그 모양이 비슷한 것인데 이 鈇笠의 정수리에는 寶玉을 장식하고 있음이 보이니⁹⁾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元 服屬下에서 蒙古文物이 잔재하고 있었던 高麗의 社會相과 더불어, 年代的으로 보아서도 恭愍王 16年(1367)은 明 建國(1368) 以前이라는 사실이 이의 추측을 일층 가능하게 한다고 보겠다.

다시 「高麗史」에는 同年 9月 「始着笠朝謁」이라 하여 公服에 幘頭 代身 笠子를 쓰고 朝謁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23年 4月에는 「命宰相臺省 重房門著笠」이라 하였으니, 高麗末期에 이르러 平涼子型의 笠子가 朝臣들의 頭飾에 使用되어 後日 朝鮮王朝 五百年의 重要한 冠帽가 되는 黑笠이 이때 形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方笠도 官과 吏 間에 使用되었던 모양으로 「高麗史」卷 72에

恭愍王二十一年五月 命代言班主以上 皆戴黑草方笠
이라 있으며 또한

辛禡元年 十二月 始令各司胥吏著白方笠
이라 하였으니 官黑吏白으로 共用이었던 것 같다.

다시 「高麗史」列傳49卷136의 記錄에는 禡王 13年 5月 僕長壽가 明廷에 보고하고 있는 內容이 있는데 이에서 當時 高麗의 服飾 風俗을 짐작할 수 있다. 즉

國王朝服祭服 陪臣祭服 都分著等第賜將去了 只有便服不會改舊樣子 有官的雖戴笠兒 百姓都戴着了元朝時一般有纓兒的帽子

「國王之 朝服, 祭服, 陪臣의 祭服은 이미 사여가 있었으나 다만 便服은 舊制를 고치지 못하고 있으며 官員은 笠兒(笠子)를 쓰고있고 百姓

들은 元朝때와 같이 有纓兒的帽子를 쓰고 있다」고 하였는데 추측건대 笠兒 즉 笠子는 恭民王때 官員에게 쓰게한 靑笠이나 黑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有纓兒的 帽子는 끈이 달린 모자이니 그 끈은 갓 끈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갓(笠)에 속하는 冠帽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¹⁰⁾

그리하여 辛禡 13年 6月 明制에 따른 具體的 冠服改定 단행시에는 明制로 보이는 高頂笠의 存在가 西班五六品以下 工商百姓의 頭飾에 이르기까지 널리 制定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高頂笠의 制樣에 대하여 金東旭氏는 「平低하게 된 幘頭に 對하여 높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垂帶가 없는 帽子로서의 形態이며 兩府代言以下 雨雪時면 高頂笠에 頂玉이라 하였으니 여기 頂玉은 앞에 잘록진데 붙은 장식이 아니었던가 한다」하였고 嶺南大學校刊 「韓國의 冠帽」에는 「특히 兩府代言以下 雨雪時면 高頂笠에 頂玉을 장식하였다고 하니 雨雪에도 견딜 수 있는 高頂笠이라면 이 笠制는 혹 禦雨笠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며 그 形態에 있어서도 雨水가 흘러 떨어지기 쉽게 雨笠(삿갓)에 가까운 것으로 아직 黑笠에 이르지 못한 笠子인 듯하다」¹¹⁾ 하여 그 形態를 方笠型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李如星氏는 「高麗史에 依據하더라도 笠子(平涼子型을 말하는 듯하다: 筆者註)系에는 高頂笠·八面八頂笠, 圓頂笠등이 있고 方笠系에는 黑草方笠·白方笠등이 있어 云云……」하여 오히려 高頂笠을 平涼子型으로 단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후 朝鮮王朝에 들어서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이는 다만 明의 制樣이라고 추측할 뿐 그 精確한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III. 朝鮮王朝의 笠

上古時代부터 下庶人 冠帽로 존속해 왔으리라 믿어지던 笠은 점차 士庶共用으로 着用範圍가 넓어져 갔으며 이에 따라 장식적 요소가 加味되고 재료나 竹의 精粗, 修飾, 貌樣등에 差異를 두면서 발달하여 朝鮮王朝 五百年間을 지켜 내

8)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1963), p. 71.

9) 王子清, 中國服飾史綱, (臺北: 中華民國大典編印會印行, 中華民國 56年), p. 168.

10) 柳喜卿, “高麗服飾에 미친 中國服飾의 影響”(梨大出版部, 1973), p. 93.

11) 沈戴完, 李駁昌共編著, 韓國의 冠帽, 嶺南大學校 新羅伽伽文化 研究所刊), p. 34.

려온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服飾은 언제나 階級的인 面에서 上向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貴賤上下가 混淆되었던 모양으로 禁制를 내리기도 하였으며 또한 時體에 따른 笠 貌樣의 變遷도 無常하여 隨時로 그 流行의 變化를 指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 笠의 需用 過程

國初 士族의 笠子는 草笠이었던 모양으로 이를 實錄에서 보면 太祖 6年 2月

賜左政丞趙浚草笠及玉纓子 賜奉化伯鄭道傳宜成君南閣草笠

이라 하여 왕은 左政丞등 두 사람에게 草笠과 玉纓子를 賜한 사실이 보이며 世祖 9年 7月에는 紫草笠의 贈與가 있었고 睿宗 元年 王은 謝恩使에게 黑草笠을 贈與하고 있음이 보인다. 그러나 「經國大典」禮典 雜令에

士族 五十竹草笠 庶人 三十竹草笠

이라 하였으니 이후 草笠은 士庶가 모두 着用되 竹의 精粗로 等위를 가리고 있는 듯하다. 또한 「經國大典」禮典 儀章條에는 別監의 常服에 朱黃草笠을 定하고 있는데 別監의 草笠 着用에 對한 기록으로는 「續大典」에 「別監郊外動駕時 黃草笠」이라 하였고 「大典會通」에도 이의 記錄은 變함이 없으니 이것은 곧 紅袍를 입고 虎鬚를 꺾은 草笠을 着用했던 例를 말하는 것으로 이 制度는 國末까지 계속된 것 같다. 末葉에 이르러 草笠의 着用範圍는 점차 줄어서 다만 冠禮한 소년이 망건을 하고 그위에 草笠을 着用하였으니 이는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笠制辨證說條에

草笠則童子加冠始着之

라는 記錄에서 그 面貌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冠禮를 마친 소년을 草笠童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古形인 方笠은 이미 朝鮮王朝 初부터 胥吏의 制帽로 制定되었던 바, 太宗 16年 正月(實錄 2卷)

鄉吏官門進退及大小使客迎送時 著頭巾 常時次頭

與各司吏典及平人無異其漸日趨於無禮

許令方笠黑漆依前著持 驛吏亦依前例從之

「鄉吏는 官門進退나 大小官吏 迎送時에 頭巾을 쓰고 常時에 坎頭를 쓰기로 하였으나 各司吏

典과 平人이 다르지 않아 紀綱이 서지 않으므로 다시 方笠을 黑漆하여 쓰게하고 驛吏도 이에 따르게 하였다」하니 이로써 胥吏의 黑漆方笠의 制度를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그 뒤에 鄉吏들이 줄곧 黑漆方笠을 썼던 모양으로 成宗 3年 8月(實錄 8卷)에 「鄉吏公服幘頭 常服黑竹方笠」이라 했고 이것은 또한 「經國大典」儀章中 「鄉吏常服黑竹方笠」의 記錄과 同一하다. 따라서 高麗末 官黑吏白의 區別로 官人和 胥吏間에 通用되던 方笠이 朝鮮王朝 初에는 鄉吏들만이 着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점차 鄉吏階級에서도 方笠 着用을 忌避하였던 모양으로 이를 「晝永編」(下)에서 보면 「光海 甲寅年(1614)에 이르러 各道 鄉吏들로 하여금 法典에 의거하여 다시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平安도와 함경도 두 道의 鄉吏들은 본래부터 이것(方笠)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경상감사는 鄉吏들의 訴寃에 따라 착용시키지 말것을 요청하여 允허를 얻으니 다른 道에서도 차례로 狀請하여 允허를 얻었다. 그리하여 司憲府·司諫府의 署經을 거친 뒤에 알려져 시행하기에 이르렀다」하였으니 後代에 와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方笠에 對한 「晝永編」(下)의 記錄을 다시 인용해 보면 「大體的으로 方笠은 新羅 때부터 그 以來로 우리나라의 時俗의 制度이다. 사람이 그것을 着用한 것은 처음에는 凶服도 아니고 賤服도 아니었다. 그런 까닭에 高麗 禡王 元年에 各 官司의 胥吏로 하여금 白方笠을 着用하게 하였다. 方笠을 이때 처음 着用했다는 말은 아니다. 恭愍王 21年 代言班主 이상으로 하여금 다 黑草方笠을 쓰게 하였는데 뒤에 吏胥의 무리가 외람되게 黑方笠을 着用함으로 因하여 禡王代에 이르러 특히 그 빛을 흰것으로 하여 等위를 區分한 것 같다. 我朝에 있어서는 온 나라에 이를 着用한 자는 鄉吏 한 계급 뿐이었다(중략) 이것은 본來는 鄉吏를 천대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는 아니었으나 그들만이 홀로 着用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하였으니 이러한 이유로 朝鮮王朝 後期에 이르러서 方笠은 점차 罪人視 여겼던 喪人의 쓰게로 되어 喪笠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또한 太宗 17年 12月(實錄 2卷)

凡大小官吏於朝路 非雨雪日而着笠 實爲未便 乞依華

制 除三軍甲士外東西文武官吏及前御有官守者 非雨雪日則 常着紗帽以肅朝儀違者科斷 命曰來戊戌年正月初一日 始行之

라 하였으며 同王 18年 正月(實錄 2 卷)

百官始着紗帽於朝路

라 하였으니 太宗때에는 笠子를 쓰고 궁궐에 出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朝路에 雨雪日이 아닌데도 大小官吏가 着笠하고 있어 未便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雨雪日에는 笠子着用을 허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듬해 百官이 朝路에 紗帽를 썼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便服에는 笠子를 썼을 것이므로 雨雪日에 笠子着用을 미루어 보면 이때의 笠은 雨雪中에도 쓸 수 있는 加漆한 竹笠 즉 黑笠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白笠의 着用에 對하여도 그 面貌가 옛보이고 있다. 즉 端宗 2年 12月(實錄 6 卷)

且凡大小人員 毋得着白笠入闕門內來之

라 하였고 世祖 12年 閏 3月(實錄 8 卷)에는

傳于兵曹曰 今後大小行幸侍衛人員毋着白笠

이라 하여 白笠의 着用을 禁하고 있으니 아마도 當時에는 白笠이 많이 착용되고 있었던 모양이며 이를 다시 睿宗 元年 閏 12月(實錄 8 卷)에 보면

凡着白笠者 一切禁之(中略) 今方國恤着白笠 不害於義……

라 하여 一般人的 白笠着用을 一切 禁止하고 國喪中의 大小男女에게 白笠을 着用하게 하고 있다. 이후 白笠은 國喪中 制帽로서 黑笠과 논란을 벌리며 着用이 된 듯하다. 즉 李珣는 그의 著 「石潭日記」에서 「李朝 喪禮의 法制는(中略) 卒哭前은 上下 모두 喪服을 着하고 卒哭 視事時에는 白衣烏紗帽, 黑角帶, 燕居時에는 白衣帶笠을 着한다. 이것이 祖宗朝의 法制이다」라 하여 그 制度를 밝히고 있으나

成廟朝 議者以爲既着烏紗帽則笠亦當黑 于時無有據禮爭之者 遂於卒哭後着黑笠¹²⁾

이라 하였고 中宗 39年 12月(實錄 19 卷)에

成宗傳教 自貞熹王后之喪 始用黑笠

이라 하였으니 成宗朝의 喪服에는 黑笠을 着用한 듯하다. 그러나 中宗代에는

中廟賓天(中略) 柳灌摠護使建議曰 衰服尙未脫而遂着

黑笠 既乖禮意 且非祖宗之制遂白笠之制라 하였고 中宗 39年 12月(實錄)에도

儀註云 卒哭後笠則用白

이라 하였으니 다시 白笠의 制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白笠의 制는 한결같지 못한 바, 다시 「石潭日記」의 記錄을 보면 仁宗의 喪에는 다시 大臣들이 「白笠은 古制가 아니라 柳灌의 制이며 그 뜻은 그르다」하여 黑笠으로 돌아갔으며 明宗代에도 黑笠의 制는 여전히 「十月丙戌 明宗大王卒哭 上下着白笠 始復五禮儀制」라 하였으니 明宗以後는 白笠의 制로 되었고 이후 별 論難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점차 國喪中 白笠着用은 定着化 되었던 것 같다.

또한 笠의 一種이기는 하나 그 原流를 胡風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氈笠이 國俗의 笠制로 스며들어와 武官의 戎服에 많이 依用되었는데 이것은 毛笠 혹은 氈笠이라고도 불리우니 이러한 名稱은 그 재료가 毛材인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널리 사용된 名稱은 戰笠인 바, 군인의 笠子임을 指稱한다. 戰笠에 對하여 「燃藜室記述別集」 卷13 冠服條에

西北人多戴氈笠 蓋近胡俗也 自戊午渡遼之役與國中或有戴氈笠者 轉相親效編及四方 丁卯胡變士大夫亦戴之 武人則雖大官無不盡然 氈笠或謂之戰笠 此乃戰爭之兆歟

「西北사람들이 氈笠을 많이 썼으니 대체로 오락케 風俗에 가까운 때문이었다. 戊午年(1618, 광해10) 요동으로 들어가 전쟁할 때에 國內에서 혹 氈笠을 쓰는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본받아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丁卯年(1627) 胡亂때에는 士大夫도 썼고 武人들 中에는 大官이라도 쓰지 않는 者 없었다」고 하였고 「靑莊館全書」에도 「東國의 氈笠은 옛날에는 다만 軍漢이 이를 썼기에 戰笠이라 하였다. 齊民은 다만 平涼子를 썼다. 丙丁亂後부터 軍民通行의 笠帽가 되었다. 布笠에 비하여 작고 尖하다. 近者에는 簷이 점점 넓고 광활하여 布笠과 다름이 없다. 그 流弊 莫甚하다. 더욱이 四時를 通하여 쓰고있다」하였으니 戰笠이 武人 戎服이었음은 물론 한때 士大夫나 一般에게까지 널리 보급되

12) 大東野乘, 卷64. 石潭日記, 卷之上, p. 364.

13) 大東野乘, 卷64. 石潭日記, 卷之上, p. 364.

었던 것 같다.

以上の 것 외에 平凉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各種의 笠 中에서 가장 古形을 유지하여 下層계급에 잔재하였던 것으로서, 末期에 이르기까지 賤人層에서 사용되었으니 이것 또한 朝鮮王朝의 笠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 平凉子에 對하여 「燃藜室記述別集」 卷13 冠服條 및 「林下筆記」 卷17 文獻指掌編에는 「趙克善(1595—1658)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庶民들은 모두 平凉子를 썼는데 그 制는 대를 엮어서 만들었고 그 體를 素로 하였으며 역졸만은 검은 칠을 하여 썼다. 俗稱 양반은 黑笠이다 함은 서민이 着用하는 平凉子の 色이 素이기 때문이다. 壬辰年(1592) 난리에 敵이 양반을 보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 一時 大小人이 모두 平凉子를 썼다」 하였고 「治谷三官記」에도 「임진왜란 때 敵이 흙색갓을 쓴 兩班만 만나면 잡아가고 平凉子를 쓴 者は 극빈자라 인정하여 죽이지 않았으므로 이때 一般 兩班들도 平凉子를 써서 크게 유행하였다」고 記述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初에 이미 細竹絲로 짠 黑笠이 있어 兩班層에서는 黑笠을 常着함에 오랜 歷史를 가진 平凉子は 오랫동안 下層階級에서 사용하였던 것 같다. 또한 「梅泉野錄 卷2 高宗 32年條에

許屠漢免賤戴漆笠 舊俗嶺湖屠漢 不敢戴笠
 惟着平凉子 至是 自內府屢飾許笠使同平民
 蓋欲收賤流之心而屠漢輩疑畏不敢笠
 强而後行 終有不笠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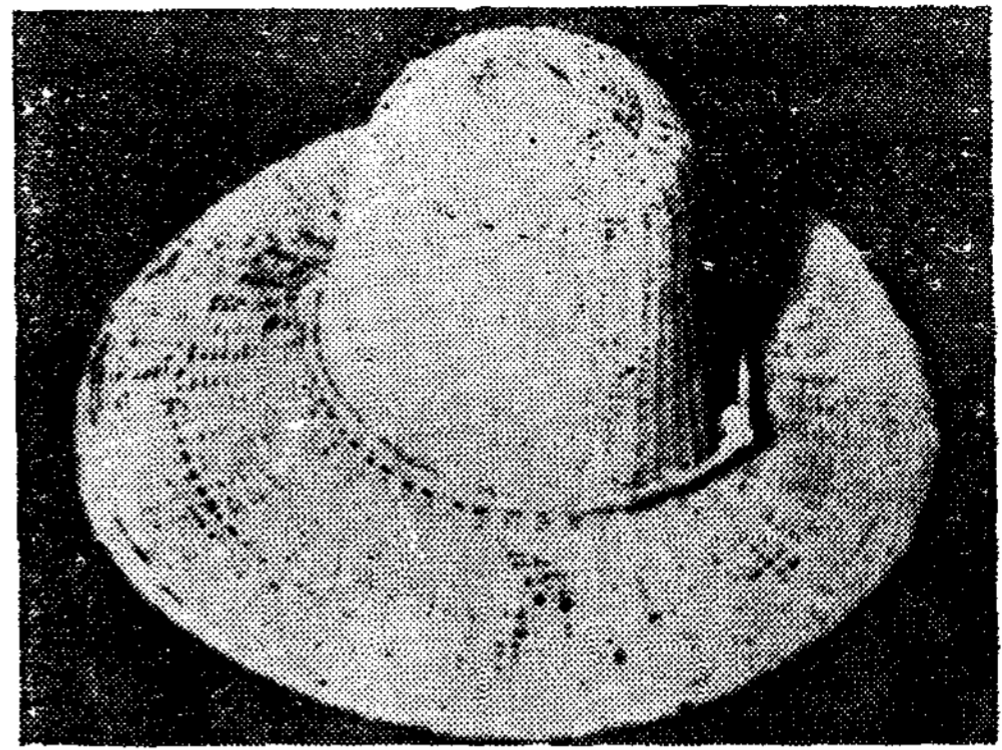
라 하여 屠漢輩 즉 白丁에게도 平凉子쓰는 것을 금하고 漆笠(黑笠)을 쓰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敢히 漆笠을 쓰지 못하고 從前의 平凉子를 썼다는 것인 바, 이로써 平凉子가 朝鮮王朝 末期까지 賤人層의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B. 笠의 種類

1. 平凉子型

가. 平凉子(蔽陽笠, 패랭이, 遮陽子)

굵은 竹絲로 성글게 대우와 양태를 엮은 典型的인 笠子形이다. 이것은 後日 草笠을 거쳐 黑笠으로 移行하는 中間期의 것으로서 形態에 있어서도 黑笠의 帽頂이 平平한데 비해 平凉子は 둥글다(사진 2). 平凉子에서 갓이 생겨나오고 (帽頂이 높고 笠簷이 넓은 後世의 笠子) 갓은 黑漆을 하여 黑笠이라는 이름을 얻게되면서 素



<사진 2> 平凉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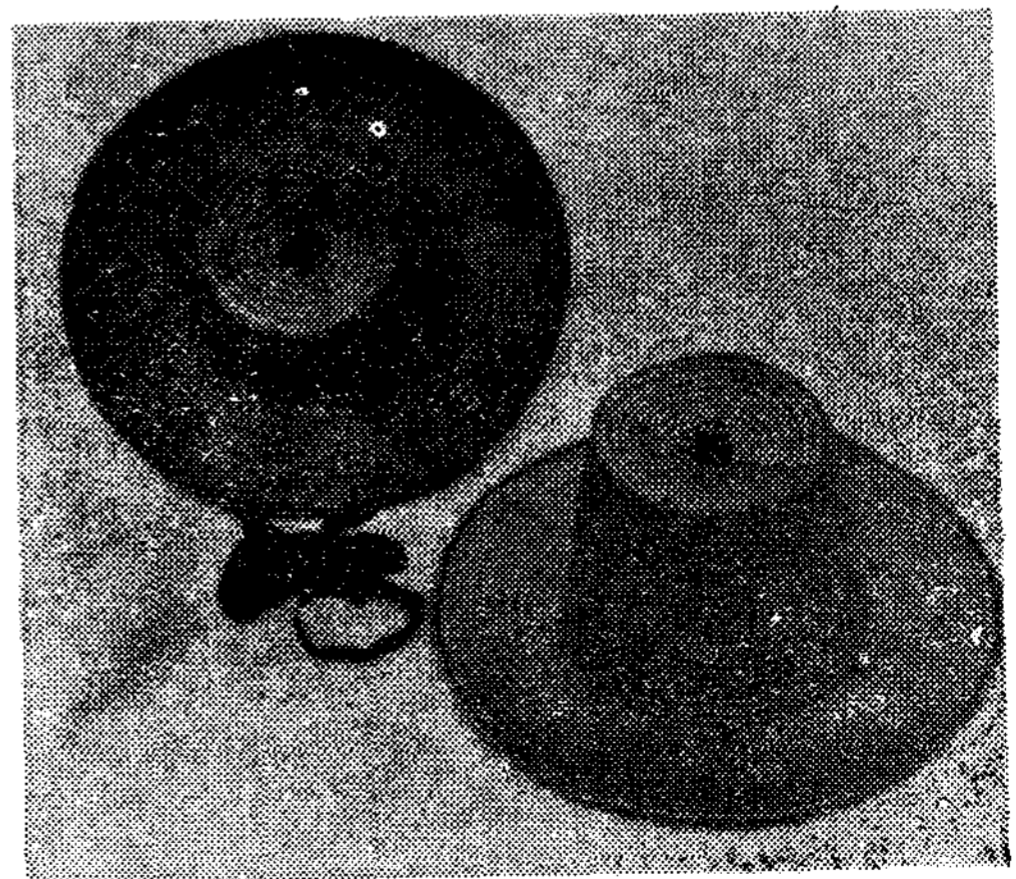
色 그대로인 平凉子는 驛卒·褌負商·白丁輩등 賤業人層이 常着하게 되었다.

나. 草笠

대체로 朝鮮初期의 笠制인 바 草笠이란 원래 그 재료에 依한 名稱으로 草材로 製作한 笠子인 듯한데 經國大典에

士族五十竹草笠 庶人 三十竹草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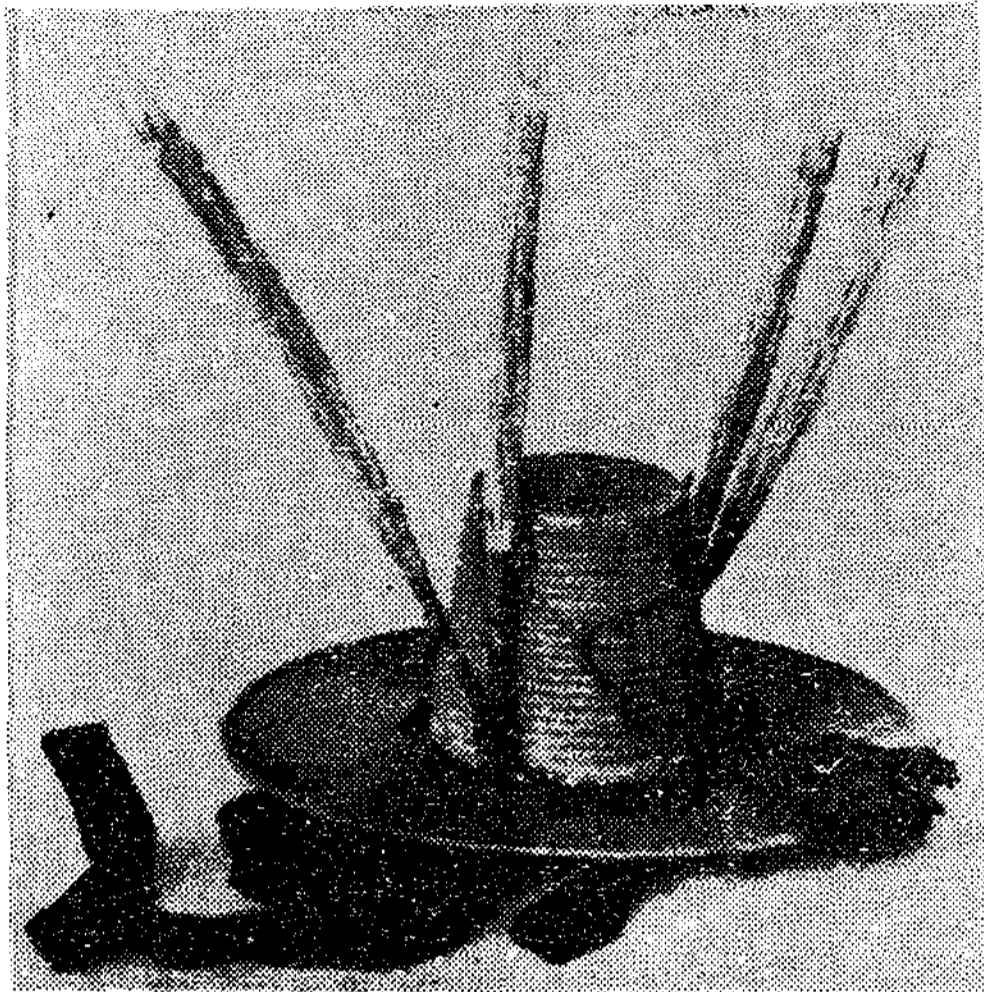
이라 하였으니 후에는 그 재료가 竹材이었음을 알 수 있다. 形은 平凉子和 비슷하나 대우(帽子)와 양태(笠簷)가 더욱 分明하며 黑笠과 같이 上狹下寬의 帽子和 圓形의 笠簷으로 形成되었고 帽頂도 平平해져 平凉子에서 한층 黑笠에로 가까워진 形態이나 平凉子나 黑笠의 양태가 아래로 우긋함에 비해 草笠은 도리어 위로 빼드러져 올라갔다(사진 3).



<사진 3> 草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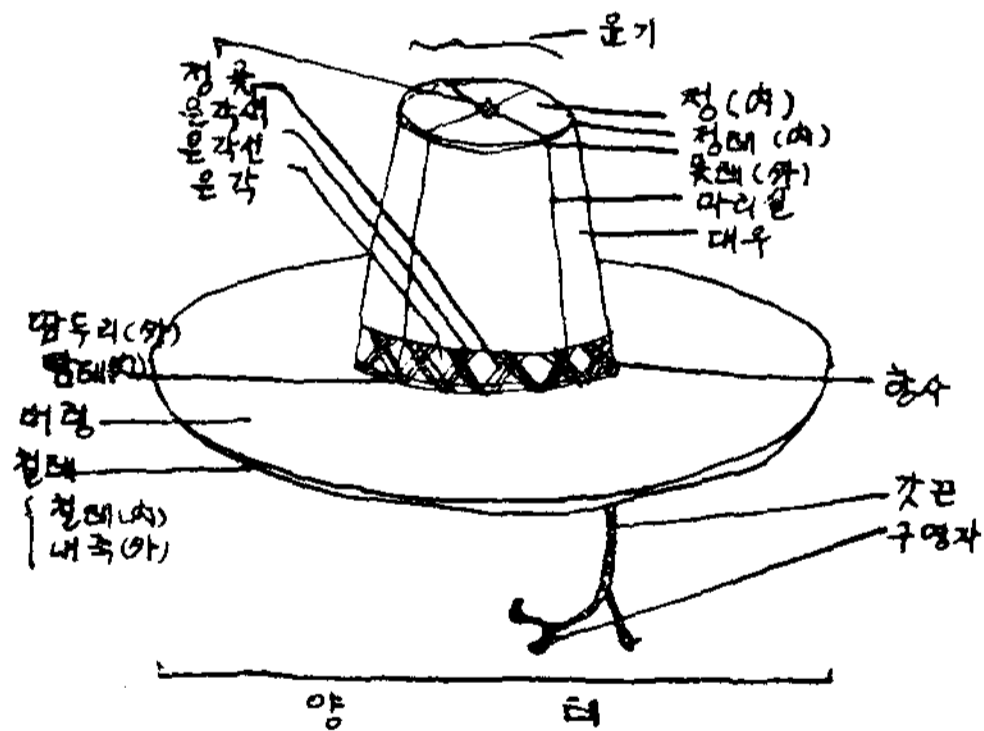
다. 黑笠

平凉子, 草笠을 거쳐 定着된 朝鮮王朝時代의 代表的 笠子로서 「갓」이라고 하면 곧 黑笠을 指稱한다. 基本的 形態는 대우에 양태를 단 것으



草 笠(2)

로 양태는 버령을 약간 곡선을 이루도록 짚으며 帽子는 圓筒形이지만 위가 조금 줄어든 上狹下寬의 形으로 帽頂이 평평하다(사진 4) 이것은 竹을 머리칼만큼 가늘게 오려 대우와 양태를 만들고 그위에 黑漆을 한 것인데 竹絲로 결은 대우와 양태 위에 「싸기」인 布·馬鬃·牛尾·猪毛 등을 덮어싸서 만든 笠子도 있다(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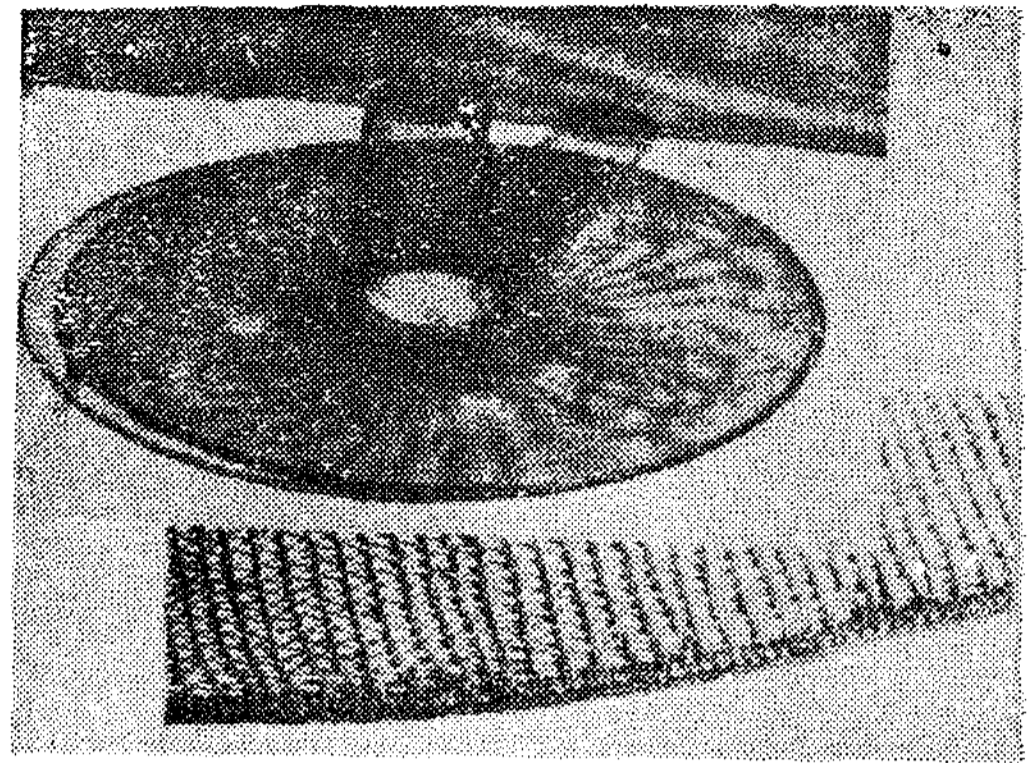


<도 6> 黑笠의 部分的 名稱

(1) 眞絲笠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竹絲로만 대우와 양태를 네겹으로 엮고 그 위에 中國産 축사를 한을 한을 입혀 칠을 한 것이다. 王이나 貴人이 着用하는 極上品으로 王이 쓰는 所謂 御笠에는 은각 밑부리에 唐絲를 물들여 끈 紅絲를 감는다. 이것은 「합사돌린다」고 하여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¹⁴⁾

14) 芮庸海, 人間文化財, (서울: 語文閣), p. 346.



<사진 4> 黑 笠

(2) 陰陽絲笠

眞絲笠의 다음 等品인 바, 모자는 말총을 곱게 엮어서 하고 양태만 竹絲에다 絹絲의 一種인 축사를 울려 옷칠을 한 것이다. 실은 靑絲를 두른다.

(3) 陰陽笠

陰陽絲笠의 다음 등품으로 총모자에 양태는 竹絲를 쓰나 양태 위를 축사 代身 生絹를 입혀 옷칠을 한 것으로 綠絲를 두른다.

(4) 馬尾笠(鬃笠·馬鬃笠)

「經國大典」雜令條에

士族草笠 五十竹 又馬尾笠

「續錄」刑典에

鬃笠 時散朝士 許着

이라 하였으며 「後續錄」禁制條에

堂上官外 勿着鬃笠

이라 하였으니 말총으로 대우와 양태를 짚고 곁품으로 堂上官 以上の 頭飾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외에 싸기를 豚毛로 했던 猪毛笠과 豚毛와 竹을 혼합한 竹猪毛笠도 있었다.

라. 朱笠(紫笠)

黑笠이 黑漆한 것임에 반하여 朱漆을 한 것이 朱笠이다. 이에 對하여 「五洲衍文長箋散稿」卷 45 笠制辨證說條에

紗笠朱笠爲文臣堂上所着以爲戎服之具

라 하였는데 高宗 1年 7月 10日實錄에 「朝臣戎服에 帖裏는 舊例대로 品에 따르되 虎鬚·朱笠·貝纓은 永除하고 漆紗笠을 마련하되 첩리와 함께 착용토록 하라」하였고, 「大典會通」儀章條에도 「堂上官 戎服에 紫笠을 漆紗笠으로 하고 貝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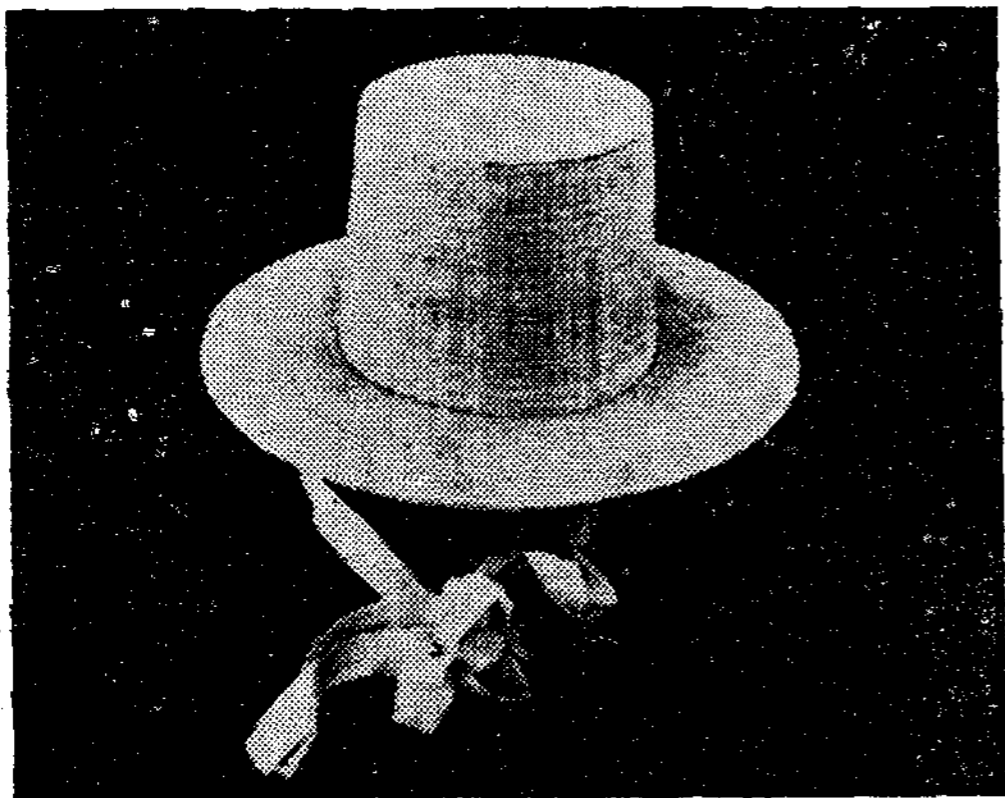
廢한다」하였으나 다시 高宗 11년에는

朝臣戎服之朱笠 虎鬚貝纓遂復舊爲之

라 하여 朝臣의 戎服에 다시 朱笠을 着用토록 하고 있으니 朱笠은 꽤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朝臣의 戎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당들이 “굿거리”에도 武官服色을 하고 장식이 없는 朱笠을 썼는데, 무당은 德談으로 民間人의 病을 고치고 武官의 威嚴으로써 雜鬼를 물리치고 士氣를 돋구어 준다는 뜻에서 武官服色으로 朱笠을 着用했다고 한다.¹⁵⁾

마. 白笠(白布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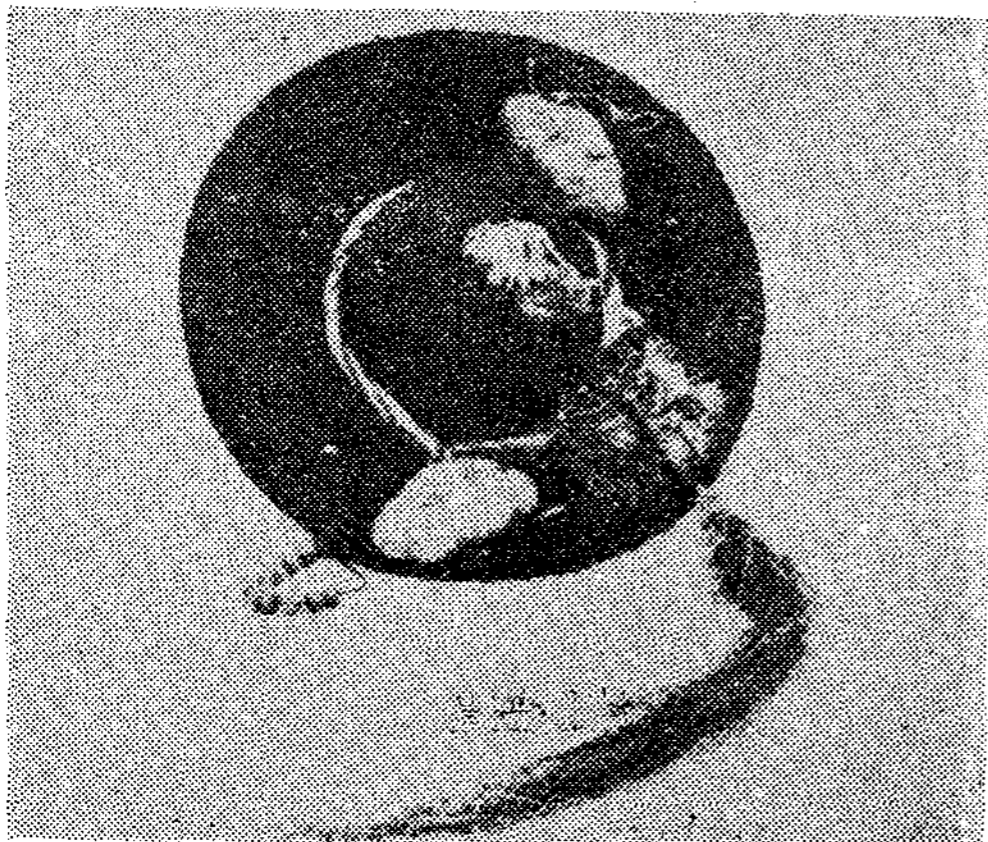
<사진 5> 白笠

竹絲로 만들고 그위에 베를 입힌 白色의 笠子를 말한다(사진 5).

바. 氈笠(戰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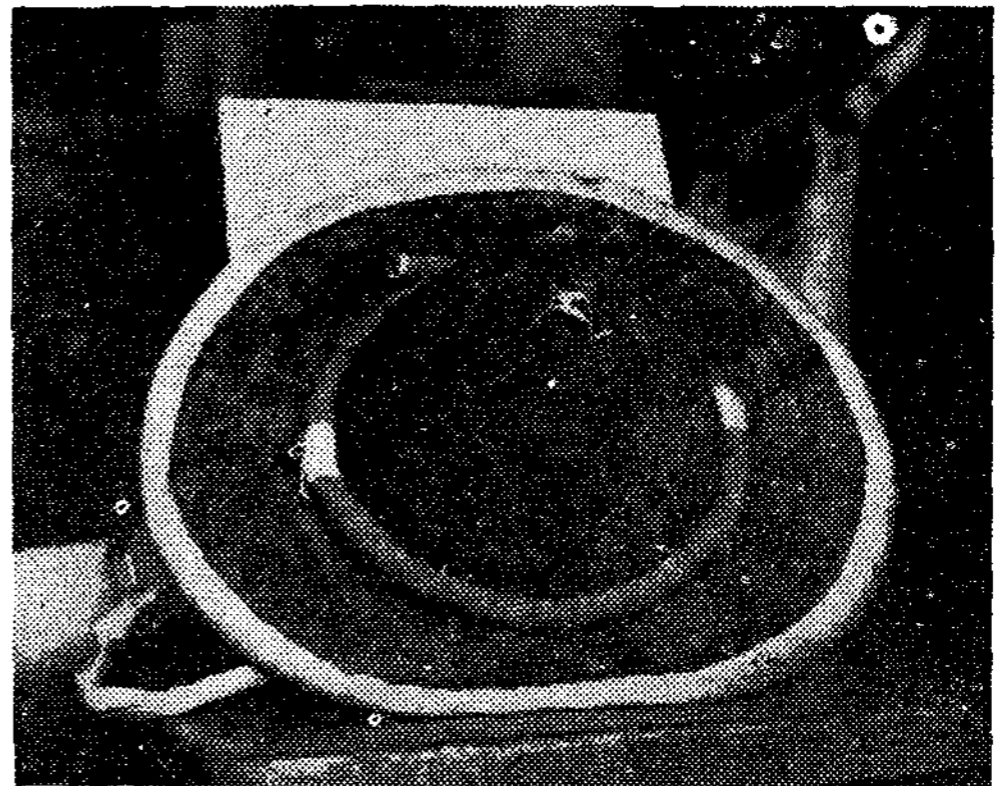
一般的으로 覆鉢形 帽屋에 양태를 단 형태로 平凉子와 비슷하다.

이것은 胡族계통의 것으로서 朝鮮中葉 以後 武官의 戎服에 사용되었는데 大體로 品等이 높은 武官이 쓰는 戰笠은 品質이 좋은 毛製品인



<사진 6> 氈笠(안울림 빙거지)

즉, 孔雀尾, 槩毛, 玉鶯를 달고 양태 안쪽에는 藍色 雲紋緞으로 꾸미고 密花纓을 달았는데 이를 “안울림 빙거지”라고도 한다(사진 6). 또한 下輩들의 頭飾에 쓰이는 氈笠은 “빙거지”또는 “빙테기”라고도 불리운 바, 이 名稱은 北方胡族으로 부터 온 外來語일 것이다(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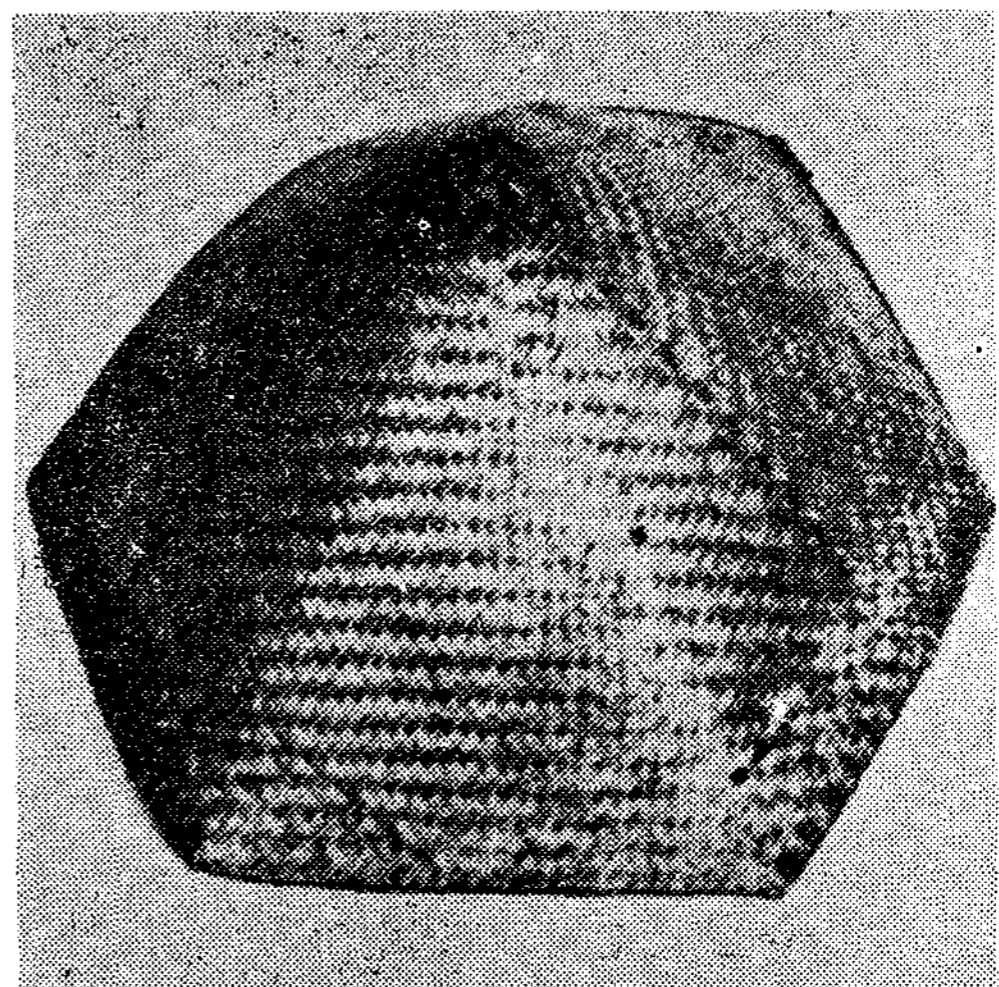
<사진 7> 빙거지

氈笠에는 그 體를 흰색으로 한 白氈笠이 있었는데 이것은 國喪中에 사용했던 것이다.

2. 方笠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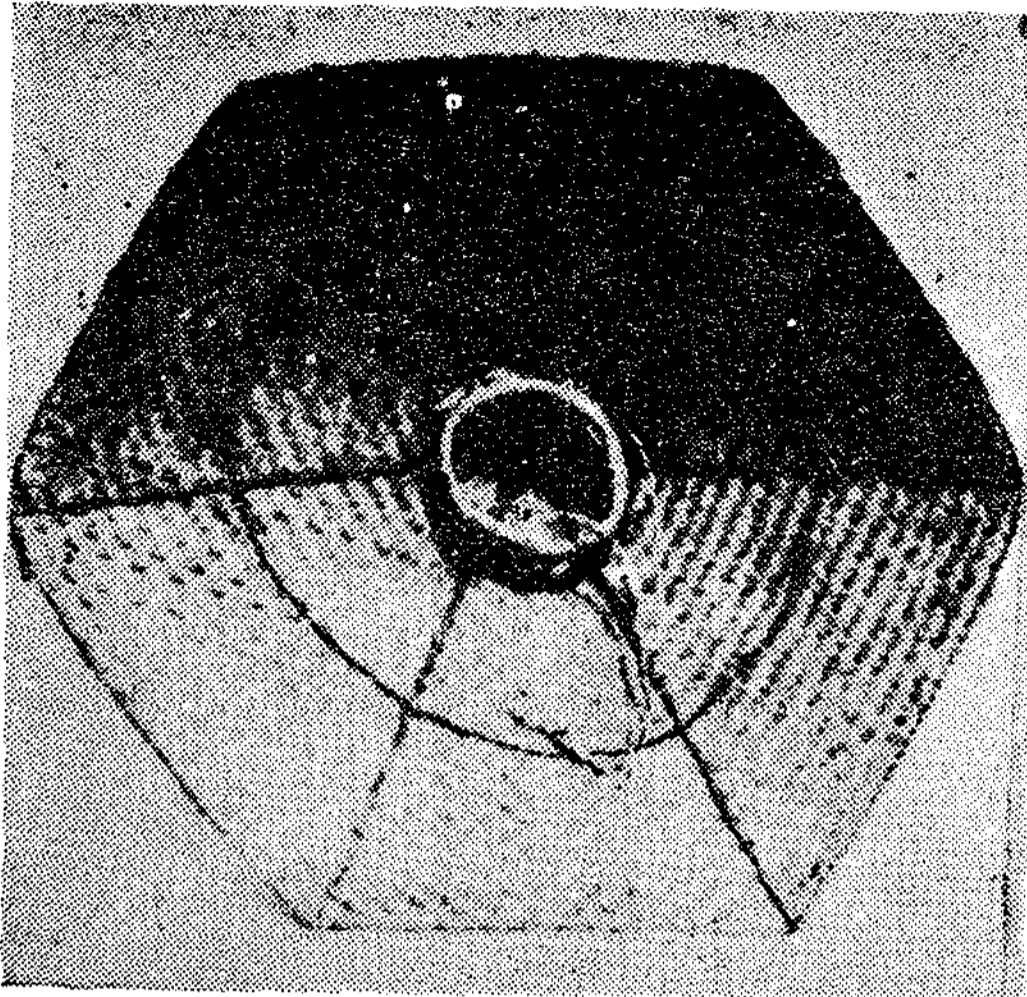
가. 삿갓(農笠·雨笠·野笠·蘆笠)

日射를 막기위한 農業笠, 雨天時의 雨裝用으로 出發했으리라고 보는 이 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방랑객의 衣裝에나 서민층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內外하는데 필요한 도구로도 쓰였었다. 이것은 갈대를 짜개서 말린 「삿」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사진 8> 삿갓(1)

15)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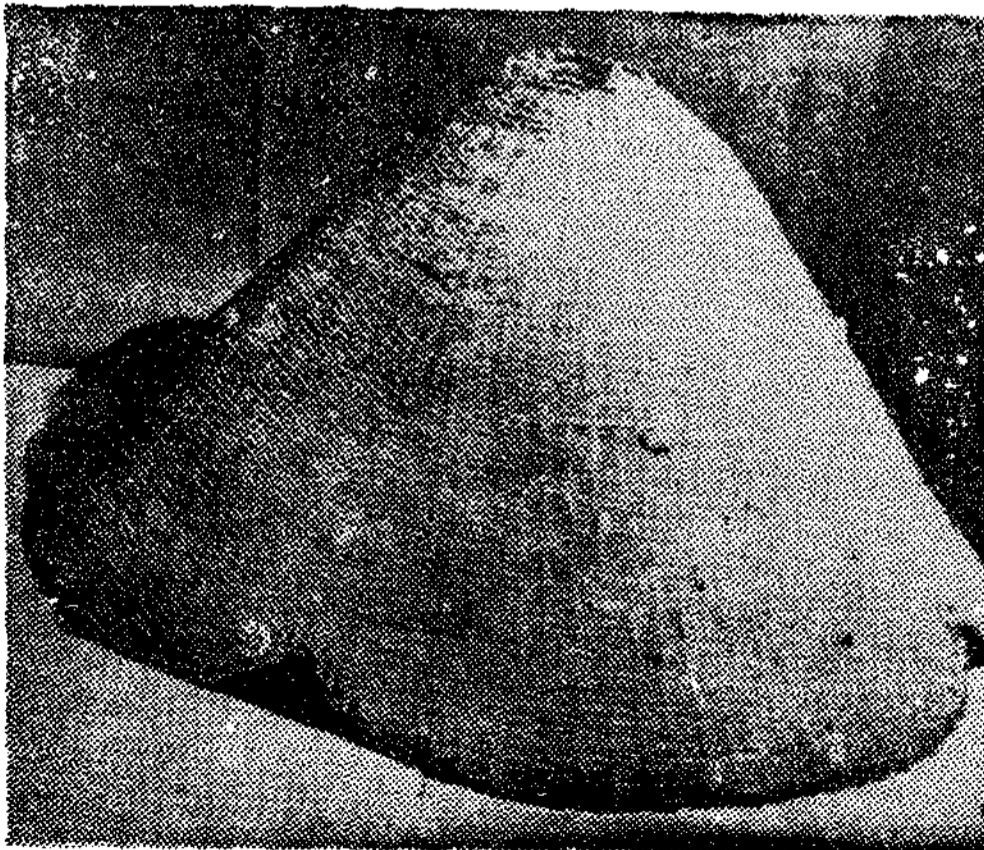


삿 갓(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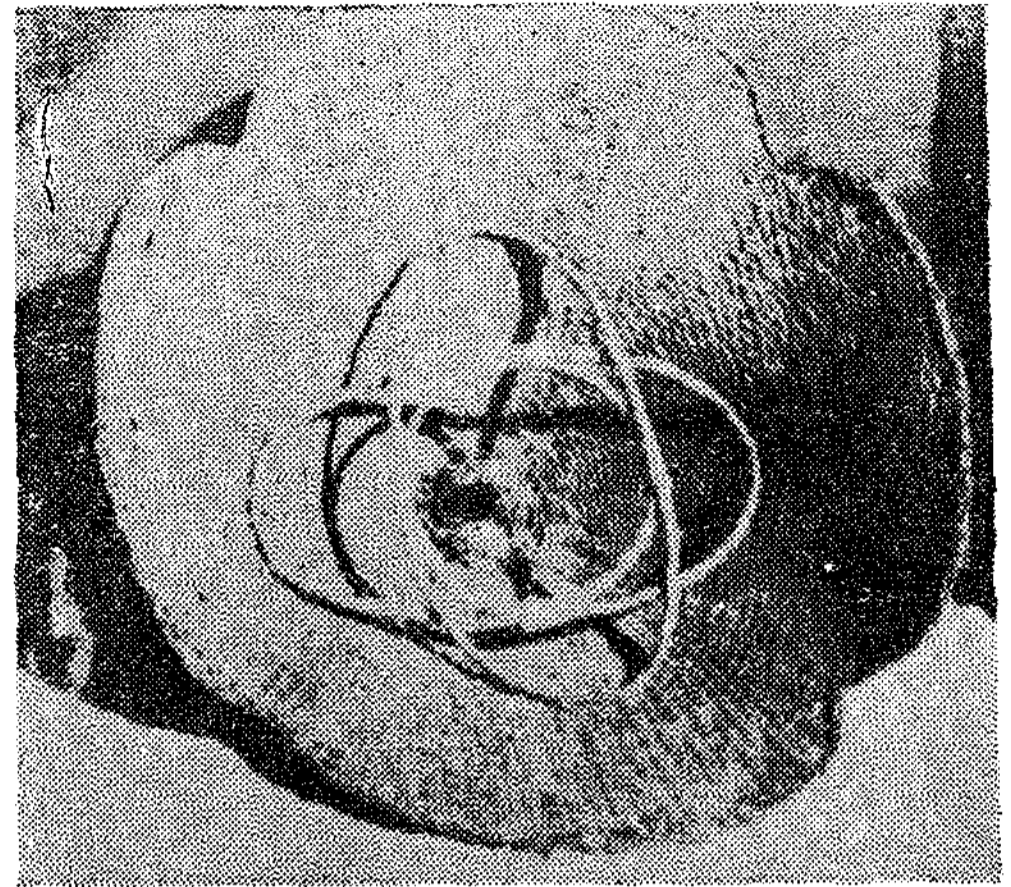
넓이로 다듬어서 뽀족하게 꼭지를 얹고 이것을 늘여서 푼주 얹어놓은 것 모양으로 딱 벌어지게 엮어 나가서 사람의 낮을 가릴만한 限度에 이르면 마지막 가상을 六角으로 도련하여 음접하고 꼭지밑으로 미사리(머리 넣는 골)를 받쳐서 머리가 들어가게 만든 것이다(사진 8). 이 삿갓을 본래로 하여 「늘」을 원료로 한 「늘 삿갓」, 대를 가지고 만든 「대삿갓」 및 「細대삿갓」등이 있는데 늘삿갓은 경기서 부터 황해도 일부에 걸쳐 士人의 「행셋件」으로 또 부녀자의 「내릿件」으로 쓰던것이며 「대삿갓」은 승려용, 細대삿갓은 특히 여승용으로 만들었었다.¹⁶⁾

나. 方笠(喪笠, 방갓)

「삿갓」을 그 原型으로 하되 원료와 型式에 일단의 進歩를 나타낸 것으로 가늘게 오린 댓가비



<사진 9> 方笠(1)



方笠(2)

를 거죽으로 하고 왕골속을 안으로 받쳐서 「삿갓」같이 만들고 笠簾의 가장자리를 四花瓣形으로 하여 「삿갓」보다는 양전하게 제작한 것이다(사진 9).

C. 笠 貌樣의 變化

— 黑笠의 制樣에 관하여 —

朝鮮王朝 時代의 笠子(갓)는 그 着用이 一般化 됨에 따라 貌樣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變化를 보이게 되었다.

笠의 貌樣에 對하여 처음 논의가 된 것은 成宗代로 成宗 2年 12月(實錄 8卷)에

笠與士大夫無別 尤爲奢汰 禁制節目詳定以啓

庶人의 笠制는 士大夫와 다르지 않고 양태가 크고 사치하니 절목을 정해 禁하라고 詳定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笠子의 尊卑等級을 가리려는 의도에서 엮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笠子의 모양에 對하여 논의가 된 것은 成宗 20年 3月(實錄 11卷) 「笠 모양이 僧笠과 유사하니 그 「制度를 개정하라」고 한 데서 부터이다. 이를 계속해서 實錄에서 살펴보면 燕山君 3年 正月(實錄 13卷) 「成宗은 笠體가 圓頂하고 簾이 넓어 僧笠과 같은 것을 싫어했고 一時에 卒變할 수 없다하여 時限을 늦춰 이를 고치기로 하였는데 요즈음의 笠體는 成宗朝때의 것과 조금 變하여 위가 뽀족하다. 사람이 舊笠을 써도 이를 일일이 禁斷할 수 없고 이를 禁하면 오히려 騷擾를 일으킬으니 그 禁令 없애기를 請한다」하니 「崇質曰, 이러한 일은 때에따라 變하며 治道에

16)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編, (서울: 1948), p. 126.

관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禁하지 않아도 괜찮다」하였다. 이는 前記한 成宗朝의 笠制 改良에 對한 命이 燕山君代에 와서는 不關治道라 하여 방치한 것을 말함이나 여기서 成宗代의 笠制는 圓頂 廣簷이었으며 燕山君代에 와서는 위가 조금 狹窄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燕山初 「不關治道」라 하였던 笠制 改良에 對한 의견은 그 後에도 될 새 없이 뒤따랐으니, 燕山君 10年 5月(實錄13卷) 當時에는 帽體가 낮고 帽簷이 넓은 笠子가 유행이었던 모양으로, 이에 「體高簷低」의 새로운 制樣을 市平署에 주고 笠匠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며 舊體의 것은 금지시키고 어기는 者는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世俗은 그렇게 빨리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던 바, 그해 7月 實錄에는 前記한 五月條의 笠制 改定이 잘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으며,¹⁷⁾ 이후 20餘年이 지난 中宗 20年 5月(實錄16卷)에는 「近來 奇巧의 徒들이 常笠을 달가와 하지 아니하여 或은 臺上(帽體)이 너무 높아 唐笠을 흉내내고 或은 舊를 變하여 面目을 가리어 보기에 해괴하며 往來道에서 보면 一國의 사람이 아닌것 같으니 이를 統一코자 한다」하여 문란했던 當時 笠制에 對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同王 25年 5月(實錄17卷) 王은 政院에 傳旨하여 「新舊의 笠制를 參작하여 따로 一笠을 만들어 民間에게 모방하게 하고 禁限日字를 定하여 이를 어기는 者나 匠人은 아울러 罪를 주라 法司에 말하라」하였으니 이때에 새로 만든 笠의 制樣은 「體低簷廣」에서 帽體를 높이고 簷을 減한 倣 中庸을 취한 모양인 듯하다. 그러나 中宗 末年의 笠制를 「燃藜室記述別集」卷13에서 보면

中廟末年 士庶常着笠樣臺上重厚高大 坪兒極狹

時人謂之冬瓜臺上切餅坪兒

라 하였으니 이로써 고친지 불과 10年 사이에 다시 笠制에 對하여 論議를 할 정도로 頂은 극도로 높아지고 簷은 극히 狹小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燃藜室記述別集」卷13에는 다시 「明宗時 慶尙右兵使였던 金舜畢가 前 笠制는 兩帽着用이 不安하기 때문에 笠子의 高廣을 加減하여

輕快하게 改造하였는데 그 후 頂이 점점 낮아져서 覆鉢한 모양과 같았고 坪(양태)은 傘을 펼친 모양으로 僧笠과 비슷해졌다」하였고 同書 卷13에도

尹國馨少時見 笠樣臺低坪廣衣袖窄 人有高笠潤袖則稱古來

라 하였으니 明宗初에 이르러 笠制는 다시 簷이 넓어진 形態로 變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明宗 11年 6月 實錄에는 「笠의 簷端이 너무 넓어 僧笠과 같아 이를 改定한다」하였는데 「改定된 笠子의 모양은 帽頂이 너무 높고 帽簷이 너무 좁아 고친 弊가 있을 뿐 아니라 笠子 하나에 米一石을 주어야 하고 新笠을 보고 사람들이 嘲笑할 뿐 아니라 凶年에 이를 전부 改備할 수 없으니 지금 쓰고있는 笠子가 해질 때까지 1,2年 期限을 두고 기다리고 舊制는 八月一日을 禁限으로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하여 王의 允許를 얻었다 한다. 그러나 「五洲衍文長箋散稿」笠制辨證說條에는

高尚顏效鬢雜記(中略) 丙寅(1566, 明宗21)以前笠制雲頭甚短而涼臺太廣

이라 하였는 바, 明宗 11年(1556) 笠制의 改定(頂一高, 簷一狹)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帽體가 낮고 양태가 극히 넓은 形態의 笠子가 明宗 末年(1567)에 이르기까지 쓰여진 듯하다.

다시 宣祖代(1568—1608)에는 점차 臺(帽體)가 높고 坪兒(양태)가 좁은 모양의 笠子가 유행하게 되었다. 즉 「燃藜室記述別集」卷13에 「宣祖 丁卯(즉위년·1567)에 중국사신 許魏가 입은 衣冠의 紗帽는 곧고 높으며 옷은 짧고 소매가 넓으니 온 나라 사람이 이를 본받았으며 갖 制度도 역시 그로 因하여 臺가 높고 坪兒가 좁아졌다」고 하였고 「五洲衍文長箋散稿」笠制辨證說條에도

丁卯之後 漸之變易衣袖之廣幾於尺余

笠頭長或至八寸齊則距地尺而涼臺則大陔矣

라 하였으니 臺가 높고 양태가 좁은 것이 時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의 笠子는 宣廟中年 笠制 復高其頂至于末年 頂極高邊極狹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二十七〉

라 하여 宣朝 中年이후 末年까지 계속되었는데 모든 流行이 무릇 그 極에 이르면 定制가 없어

17) 朝鮮王鮮實錄 13卷, 燕山君 10年 7月, v. 54 p. 22.

져서 마침내는 原狀態로 돌아 가듯이 光海君 (1609—1622)代에는 다시 그 制度에 變化가 오게 되었다. 즉 「增補文獻備考」에는

光海初年以後 漸變其制 遂至於邊極廣頂極狹 則乃所調覆子臺上安盤坪兒近數年之間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二十七>

라 하였으니 從前의 「頂極高·邊極狹」의 形態에서 「邊極廣·頂極低」로써 안반만큼 넓은 양태에 마치 주발을 엮어 놓은 것같은 모양의 笠子가 數年間 계속된 듯하다.

이처럼 넓은 양태를 가진 笠子는 仁祖(1623—1649) 癸未 甲申(仁祖 21—22, 1643—1644)에 이르러

臺上突然高太坪兒則仍其極廣未知胡然而然也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二十七>

라 하였으니 帽體가 높고 양태가 넓은 모양의 笠子, 즉 一般的으로 「큰갓」이 유행한 듯하다.

또한 孝宗 8年 正月(實錄36卷)에도

帽子極高涼臺太濶 有妨於出入門戶則期制度豈不甚可駭哉

自今以後笠子涼臺之太廣濶令法府禁之

라 하였으니 光海以後 큰 笠子는 孝宗代에도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10).

이 큰 笠子가 肅宗(1625—1720) 때에는 한때 작아졌으니 肅宗 17年 2月(實錄36卷)에 「근래 笠樣은 臺가 좁아져서 이상하니 申勅하여 舊制를 따르게 하라」하였고 「增補文獻備考」卷79에도 肅宗式의 笠 모양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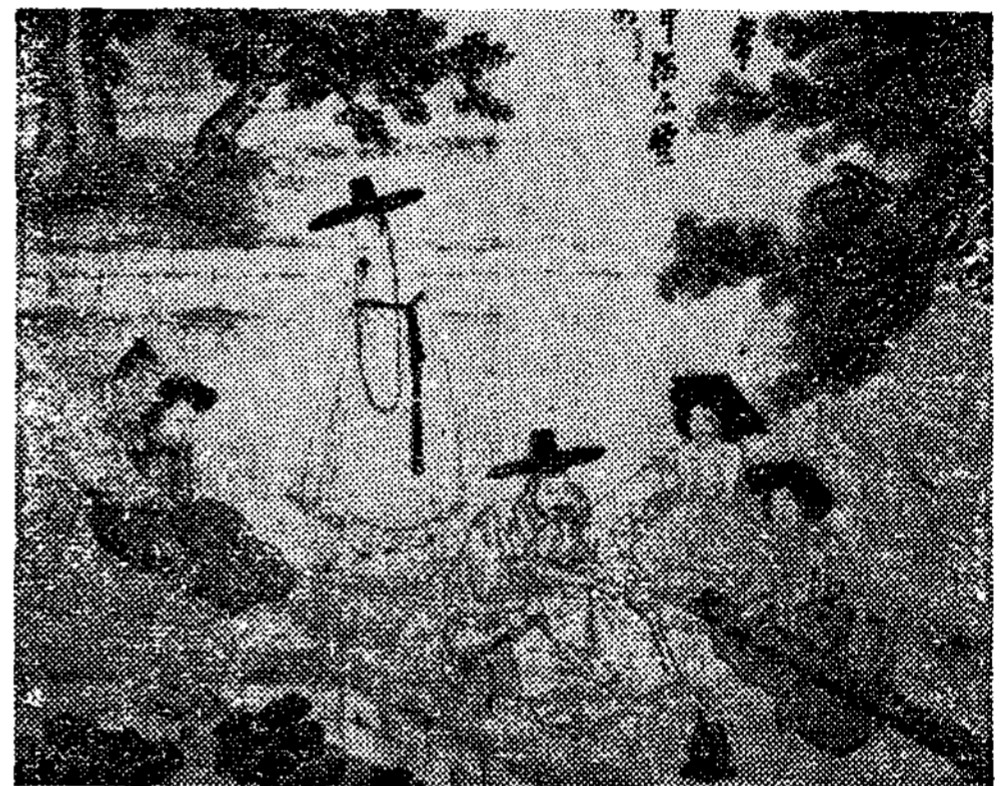


<사진 10> 하멜 표류기에서 (孝宗末—顯宗初의 笠)

上又以笠制與前大異臺帽短涼臺狹駭於瞻聆令三法司痛禁一依孝宗朝笠制造成備局依方制定式臺帽高布帛尺四寸五分涼臺之廣亦如之

라 하였는데 이때는 孝宗朝의 笠制를 따르되 高와 廣을 적당히 줄인 꽤 중용을 취한 笠子를 制定하고 있으니 이에서 그 面貌를 살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대체로 英·正祖代의 風俗圖에 나타나 있는 笠子의 양태는 비교적 크며(사진 11) 이후 變遷없이 使用된 듯한데 純祖(1801—1834) 末



<사진 11> 해원풍속도 (蓮塘野遊)

년에는 양태가 많이 넓어졌다. 즉, 純祖 34年 4月 實錄에

笠簷之舊纔覆肩者今且廣過盤坐矣

라 하여 純祖 前代에는 笠簷이 겨우 어깨를 덮을 만 하였는데, 이때는 盤坐를 지나친다고 하였으니 現尺로 70~80cm쯤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王朝 末期에 이르러는 大院君의 衣冠簡素化 施策과 더불어 笠制에도 變化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韓國痛史」第五章 國防注意 及 風俗矯弊條에도

先是邦人衣冠大笠廣袖至是改爲小笠狹袖

라 하였으니 양태가 넓은 큰갓(大笠)을 帽가 얇고 양태가 좁은 小笠으로 改良한 즉, 笠子는 큰 變化를 일으켜 아주 작은 갓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甲申政變 이후 鐘錶모자가 現代式 모자로 등장하면서 개화운동과 더불어 外勢에 물리게 되고 말았으니 無常한 變化를 隨伴하면서 朝鮮 五朝 五百年을 이어내려온 笠도 이제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V. 結 論

笠은 禦暑禦雨 用으로 出發한 特殊한 冠帽로서, 發生初期의 形態는 우산에서 손잡이를 除해 버린 오늘날 方笠型인데 이에서 조금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 帽와 簷의 區別이 있는 平凉子型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固有의 市民冠帽로 인정되는 바, 三國時代에 이미 方笠型과 平凉子型의 두 形態가 있었음이 주목되니 이로써 笠은 着用當時 부터 두 系列로 存在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高麗時代에 들어서는 資料의 貧弱함을 면할 수가 없어 初期 笠의 着用與否에 對하여 確信할 수는 없으나 徐兢의 「高麗圖經」에서 추측건대, 여기 下庶人 冠帽로 나타나고 있는 竹冠은 古形을 유지하여온 方笠型의 笠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부에서 사용되었던 「方笠」이나 「삿갓」종류로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舟人의 冠帽로 되어 있으나 農民들도 作業時에는 썼을 것이므로 下庶人 頭飾으로 널리 使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高麗末期에는 方笠이 一部 官人과 胥吏사이에 서 官黑吏白의 區別로 着用되었는데 忠烈王 33년에 制定된 僧笠인 八面八頂笠이나 圓頂笠등은 朝鮮王朝初 成宗代의 記錄으로 미루어보아 帽頂이 둥글고 笠簷이 넓은 平凉子型으로 추측되는 바, 이때에도 笠은 上代의 두 型을 確實히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恭愍王 6年 胡服의 영향下에서 自主性 모색의 일환으로 제기된 黑衣靑笠에 이어 同王 16년에는 百官의 公服에 黑笠을 着用하게 하고 階級에 따른 帽頂珠 裝飾등의 具體的 制度를 定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高麗의 笠制는 恭愍王 때에 確立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高麗末에서 朝鮮王朝初에 確立된 笠制는 平凉子型인 바, 여기에서 갓(笠子)이 생겨나 오고 갓은 다시 黑漆을 하여 黑笠이란 이름을 얻게되니 이것이 바로 朝鮮王朝 笠子の 定制가 되었다. 즉 高麗時代에 官人과 胥吏사이에 쓰였던 方笠은 朝鮮王朝 初에는 胥吏階級에서만 着用하게 됨으로 하여 壬辰亂 後에는 점차 폐지되기에 이르렀으며 드디어는 喪人의 「쓰개」나 農

民의 「삿갓」에서 겨우 그 面貌를 찾아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 朝鮮王朝時代의 方笠은 高麗朝의 方笠과는 점차 그 概念을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平凉子型의 笠은 여러 種類의 笠이 一般化하여 감에 따라 制形이 되었는데 素色 그대로인 平凉子(蔽陽笠)는 下層階級에서 사용되는 反面 加漆한 黑笠은 士庶의 常着物이 되었으니 다양해진 材料와 함께 장식의욕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種類의 黑笠이 出現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禦暑禦雨의 역할로써 出發하였던 笠은 점차 그 用途를 달리하여 社會的 冠帽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유행에 따른 笠 貌樣의 變化도 대단하였다.

笠 貌樣에 對하여 처음 논의가 된 것은 成宗代로 「笠 貌樣이 僧笠과 같으니 이를 改定하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成宗代의 「圓頂 廣簷」의 笠子가 燕山君代에는 위가 조금 狹窄해졌다고 하였으니 이에서 圓頂하였던 帽體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圓筒型에 가까와 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時代에 따른 變遷은 그 大部分이 帽의 高低, 簷의 廣狹에 있었으니 이를 歷代 王朝別로 보면

成宗朝 「圓頂 廣簷」

燕山君初 「成宗朝定樣小變而上尖」

燕山君末 「體低簷廣」

中宗末 「臺上極重厚高大 坪兒極狹」

明宗中期—末期 「雲頭甚短而涼臺太廣」

宣祖初期—末期 「頂極高 邊極狹」

이며 光海君代에는 「邊極廣 頂極低」로 양태가 큰笠子가 유행하였고 仁祖와 孝宗代에는 「帽子 極高 涼臺太闊」의 큰갓이 유행하였다. 이후 肅宗代에 이르러 한때 작아 졌으나 대체로 「高帽 廣簷」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大院君代에 이르러 衣冠制度의 簡素化와 함께 종래의 큰 갓은 작은 갓으로 變貌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모든 衣冠文物이 開化運動과 더불어 西歐文明의 물결 속에서 變化하여 버렸으니 오랜 歷史를 이어 내려온 國俗의 笠制도 終末을 告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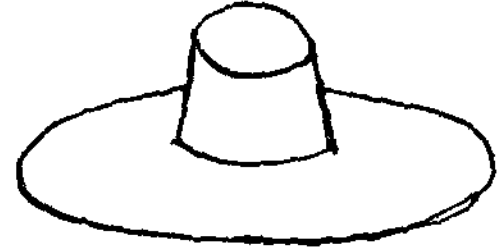
朝鮮王朝 笠 모양의 變遷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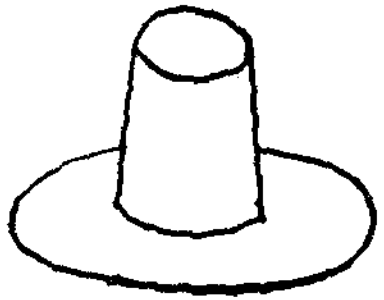
成宗代
笠樣 圓頂廣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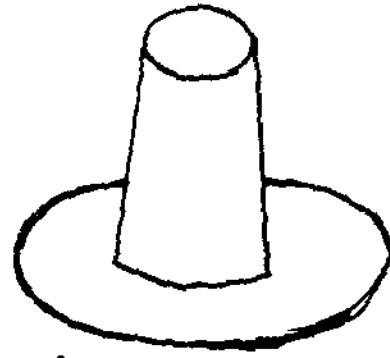
燕山君初
笠樣 成宗朝定樣
小變而上尖



燕山君末
笠樣 體低簷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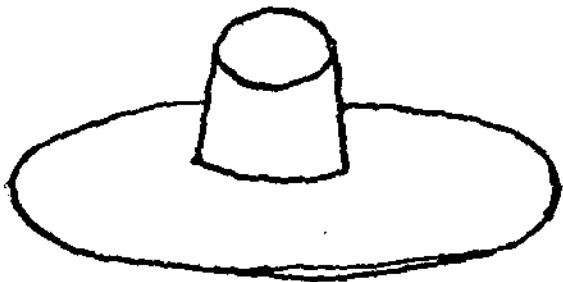


中宗中葉 笠制 李亂
(中宗 25年 新舊의 笠制을
잡작 새로 笠制을 定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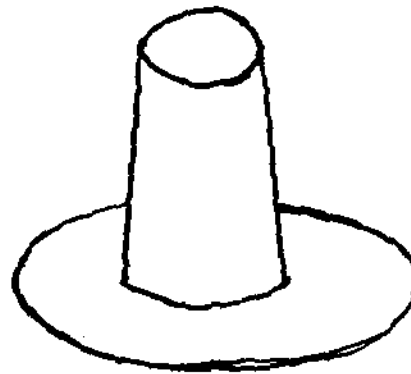


中宗末年
笠樣 臺上 重厚 高大
坪兒 極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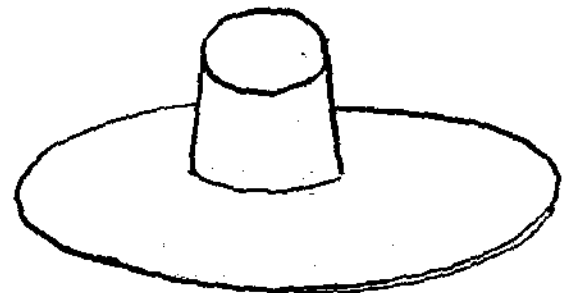
明宗初
「金舜臯笠子」出現.
(笠의 高廣을 加減한
輕快한 笠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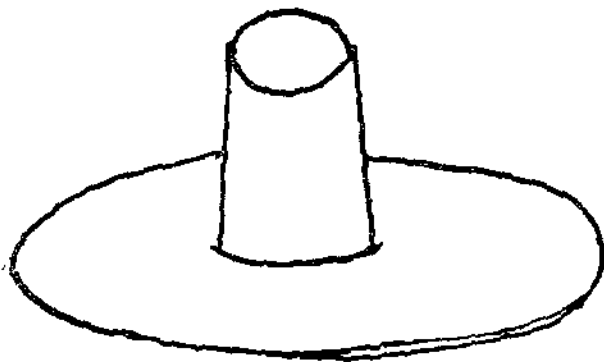
明宗中葉 → 末葉
笠樣 雲頭 懸短而 涼太太廣
(明宗 11年 笠制 改定의 令이 내
렸으나 겨울 風雨가 낮고 양태가
넓은 笠子가 使用되였음.)



宣祖代
笠樣 頂極高
邊極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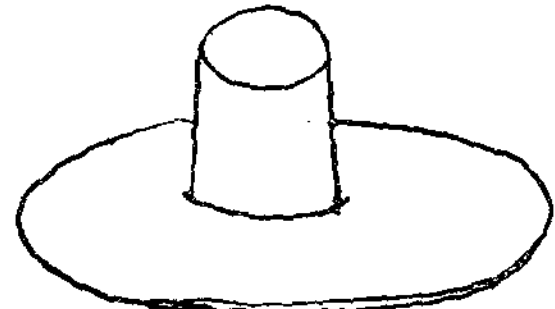
光海君初年以後
笠樣 邊極廣
頂極低
(光海君 10年 이후 舊式笠이
傳來되였음.)



仁祖末 → 睿宗末
體高簷廣의 큰 것)



睿宗代 한 때 小笠이 流行됨
(따라서 睿宗 17年 睿宗朝의
笠制을 改定되 高·廣을 적
당히 줄인 體樣을 定함.)



英、正祖 이후 宣祖代를
교비로 廣簷의 笠子가
末期까지 계속됨.

大院君의 衣冠改革 이후 笠子는 小笠으로 改定.
(甲申政變 이후 증절모자 등장.)

參 考 文 獻

- 金 東 旭 “高麗初의 民庶平服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第八卷二號, 1963. 6.
 “李朝冠帽制의 始末” 亞細亞研究, 第七卷一號, 1964. 3.
- 徐 競 宣和奉使高麗圖經. 京城: 近澤書店, 昭和 7年(1932)
- 石 宙 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普齋, 1971.
- 沈 載 完 共著 韓國의 冠帽.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72.
- 李 載 殷 昌
- 柳 喜 卿 “우리나라의 冠帽” 대한가정학회지. 第 5 號, 1963. 12.
- 芮 庸 海 人間文化財. 서울: 語文閣, 1963.
- 李 圭 景 五洲衍文長箋散考. 서울: 東國文化社, 1959.
- 李 德 懋 靑莊館全書. 서울大學校 古典叢書.
- 李 如 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 李 裕 元 林下筆記. 서울: 大東文化研究所, 1961.
 經國大典.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4年.
 高麗史. 서울: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61.
 高麗以前의 風俗關係資料撮要. 서울: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4年(1939).
 大東野乘.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大典續錄.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4年(1939).
 大典會通 上 同
 續大典 上 同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서울: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9年(1944).
 朝鮮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上 同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增補文獻備考. 서울: 株式會社 東國文化社 古典刊行會, 1971.
 秋官志.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4年(1939).
- 王 宇 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印行, 中華民國 56年(1967).